

유미 전북대 연구교수, 한국산학기술학회 '우수'

전북대학교 유미 연구교수(공대 바이오테크놀로지학과·지도교수 권대규)가 요양병원 실태 조사를 통한 피난가구의 모델을 제시한 연구로 최근 개최된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유미 연구교수는 전북대 생체역학 및 재활공학 연구팀과 함께 수행한 '요양병원 실태 조사'를 통한 피난가구 모델 제안이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르면 이 연구는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전북 소재의 노인요양병원 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시설 일반현황, 입소자 유형, 운영인력, 피난기구 등) 및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입소자를 인지 및 신체 기능의 특징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요양병원 내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 모델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연구팀의 지도를 맡은 권대규 교수는 "향후 피난기구를 적용한 화재 및 대피 시뮬레이션 등의 연구를 통해 입소자 별로 가장 효율적인 피난기구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군사학과 졸업생 26명, 육군 학사장교 임관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졸업생 26명이 육군 소위 계급장을 달고 초급 장교로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에 따르면 육군은 23일 충북 옥군학관군사학교에서 학사장교 68기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우석대 졸업생 26명은 지난 2월 입교해 초급 장교에 필요한 전투기술학 등의 소양과 전투지휘 능력을 배양해 왔다.

남찬현 총장은 "지난 4년 동안 대학에서 배운 전문 지식과 군인 정신을 바탕으로 실무에 잘 적응해 장차 군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훌륭한 장교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임관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정은성 기자



임실군,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앞장

임실군치매안심센터가 참조은노인복지센터(센터장 박민경)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지난 20일 협약 및 치매파트너 교육을 실시했다.

치매극복 선도단체란 치매극복을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지속적인 치매 관련 정보 제공 및 치매 극복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단체를 말한다.

협약 이후 참조은노인복지센터 직원과 소속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교육과 치매비로알기 등 치매파트너 교육을 실시했다.

치매극복 선도단체 회원들은 치매예방 및 관리법 실천, 치매안심센터 홍보,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이해 등 단체의 인프라와 재능기부를 통해 다양한 치매 극복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무주 아란꿈의 오케스트라, 문화재 야행사 공연

지난 24일 오후 6시 무주군 아란꿈의 오케스트라는 2023 무주 문화재 야행의 불꽃날을 이룬다운 하모니로 물들었다.

이번 연주는 문화재 야행에 어울리는 전래동요 메들리와 영화음악으로 익숙한 라이언칭, 맘미야, 위풍당당 행진곡 외에도 라데츠키 행진곡 환희의 송가를 연주해 문화재 야행의 분위기를 북돋웠다.

이번 공연을 후원해준 한국전력공사 무주지사와 한진MCS 무주지점은 공연을 준비하는 단원들의 공연을 마지막까지 관람한 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 선제 대응”

전북도, 네이버와 인공지능 안부전화서비스 시행 협약 체결

전북도가 네이버와 손잡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23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네이버(주) 나군호 웰스케어연구소장, 서양열 전북 사회서비스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안부전화서비스(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도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가족돌봄기능 약화 등으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오는 7월부터 시범 시행에 들어간다.

“AI 안부전화서비스(네이버 클로바 케어콜)는 민간 클라우드인 네이버 클로바 플랫폼을 활용해 AI가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에게 주위 전화로 걸어 건강 식사 수면 운동 외출 등에 대한 안부를 묻고 안전을 확인하는 돌봄서비스이다

특히, 이전 대화내용을 기억하고 다음 통화에 활용하는 ‘기억하기’ 기능도 갖춰 개인별 맞춤형 대화를 이어갈 수 있으며, 대화 내용에 위기 징후가 발견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관련 내용이 전달돼 담당자 방문 등 사전 예방관리가 가능 하다

이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현재도 추진되고 있는 관련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고독사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 돌봄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참여 시군에 대한 수요조사와 관련 교육, 참여 대상자로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중장년층 중심 500여명을 선정했으며 올 연말까지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이후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가족해체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고독사와 고립된 생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며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도 차원에서 사회적 고립가구 복지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등 다양한 예방사업과 대응 시스템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기자



전주교대 부설초, 워크숍 개최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부설초등학교(교장 이영환)는 23일 '교육과정으로 깊이와 품격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부설초등학교 연합회(전부련) 50여 명이 참여해 학교 교과목 개발과 적용을 통해 교사 교육과정의 사례를 확산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 '학교지음시간'을 주도한 대학과 연구 협업 사례 공유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영환 교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마주하는 중요한 시기에 16개 전국 부설초등학교가 연합해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에 전주교대 박병준 총장은 “전부련이 학교별 성과를 나누고 연대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으며,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살아야 할 어린이들에게 살아야 할 힘을 길러주기 위해 함께 배우고 실천하며 공동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주제별로 3개 학교로 구성된 토론자들이 발표주제를 설정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한편 전주부설초등학교는 흥미와 수준에 맞게 자율적인 도전과제를 선정하고 실천하는 나이트 DREAM 프로젝트를 비롯해 학생동아리, 음악중심 감성교육 및 다양한 진로체험과 교육을 통해 스스로 일어서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여성센터,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협의회 개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전정희)는 23일 센터에서 2023년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 회의는 전라북도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지원사업의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자 도·기업·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전라북도 일·생활균형 사업현황, 실태보고, 핵심 추진과제 등을 공유하고,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논의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북경영지총연회, 한국공인노무사회 광주전남북제주지회 전북노무사회, 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등 도내 일자리 유관기관 20여곳 담당자를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위원으로 위촉해 전문가·기업·유관기관 간 효율적 정보 교류체를 공유했다.

정정희 센터장은 “일·쉼·삶의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도를 확대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육아휴직과 정시퇴근 등 일과 가정, 생활 균형에 대한 전북지역 내 기업문화 환경은 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도 여성가족과 김경 과장은 “그동안 일·생활균형 지원은 재료가 있는 여성에 초점이었지만, 이번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지원사업은 가족 또는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하는 최초의 시도”라며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삶터, 전북 만들기를 위해 민선 8기 도정 목표 실현과 도민들의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남원여성새일센터, 취업자 간담회 개최

남원여성새일지원센터는 시 평생학습관에서 지난 22일 오후 6시부터 취업여성(30명)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사업으로 취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 사이 바투’라는 슬로건으로 기획되었으며, ‘바투란 두 대상의 사이가 썩 가깝게라는 뜻의 순수 우리말로, 새일센터와 취업자 서로의 사이가 가까워져 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는 의미로 기획, 취업 여성들의 개별상담을 통해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취업자 간 그룹 상담을 통해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개성에 맞는 색상을 선택하고 직접 손으로 바느질하는 가족가방 만들기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취업자의 만족감을 높여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찾아 고용유지를 높이고자 한다.



지양군 센터장(교육체육과장은) “앞으로도 취업한 여성들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우주자보센터와 봉사활동 펼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강우)와 함께 지난 23일 무주군 설천면 내곡마을을 찾아 행복 밥차를 운영했다.

태권도진흥재단 30여명의 임직원들은 설천면 어르신 200여분을 위한 식사 배식, 식사 전·후 정리, 청소 등을 진행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해영 주임은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봉사라는 의미보다 대접하는 마음이 들었다. 오늘 함께 하신 어르신들께서 항상 건강하셨습니다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우리 재단은 얼마 전 농촌 봉사활동과 오늘 행복 밥차, 도시락 봉사활동, 김장 담그기, 현열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라며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기전대, 졸업생 사후관리 이미지 컨설팅 진행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22~23일 이틀간 졸업생 사후관리 이미지 컨설팅을 통한 실전 면접 준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가를 통한 1:1 맞춤 이미지 컨설팅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졸업생들에게 자신에 맞는 이미지를 재정비하고, 면접에 중요한 전문적인 이미지 컨설팅 진단을 통해 실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사전 신청을 통해 이날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생 16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교육과 졸업생은 “졸업 후 졸업생 프로그램을 통해 1:1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럽다”며 “면접에 필요한 진단을 편하게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군산 유망강소기업들, 시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군산시는 지난 23일 유망 강소기업 ‘스코트라 주식회사’ 이종욱 대표와 강소기업 ‘주식회사 카라’ 전광일 대표가 지역발전을 응원하며 고향사랑기부금 각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스코트라(주)는 수상 부유구조체 생산 업체로 지난 5월 성장 가능성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주)카라는 자동차 도장 기술로 2020년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이후 크게 성장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뻗어나갈 잠재력을 인정 받아 지난 5월 군산형 강소기업에 연이어 선정됐다.

두 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주목받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종욱 대표와 전광일 대표는 기부금 전달식에서 “군산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며 군산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 우수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군산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군산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까지 동참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고창경찰, 운동부 학생 대상 학교폭력 특별예방교육

고창경찰서(서장 이석현)는 최근 영선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운동부(유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등 근절을 위한 특별예방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특별예방 활동은 운동부 학교폭력 피해 유형, 청소년 마약범죄 실태, 피해 시 대처요령, SR0·117 신고 방법 등을 교육했다.

특히, 운동부 특성상 단체 생활 및 엄격한 위계질서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학교폭력 신고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했다.

이석현 경찰서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방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